

매경인터뷰: 신수연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 한·중·일 여성 네트워크 앞장

“아시아 여성 경제인들의 교류 폭을 넓히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성 경제계 원로인 신수연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블루스타 에너지 대표)이 한국과 중국, 일본 여성 경제인들의 구심축이 되어 다음달 2일 도쿄 전경련회관에서 ‘한·중·일 여성경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함께 배우고 아름답게 창조하자’는 슬로건으로 3개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경영 환경 등을 짚어보는 자리다. 또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경제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신 전 회장은 국내 여성 경영인 20여 명과 함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북핵 문제와 역사 왜곡 논란 등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며 “하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3개국은 아시아 번영을 이끌어갈 동반자이기 때문에 여성 경제인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대 여경협회장을 역임한 신 전 회장은 25년 동안 여경협을 지켜온 산증인이다. 총무이사과 부회장 등을 맡으면서 여성기업지원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전국 13개 지회와 회원사 1600여 개를 둔 여경협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일본 여성경제인연합회 설립에 자문 역할을 맡으며 친분을 돈독히 해왔다.

“경제대국인 일본은 조합이나 상공회의소는 활발하지만 여성경제인협회는 없었어요. 한국여경협이 특별법인으로 거듭난 배경과 여성기업지원법 제정 절차와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 전 회장이 산파가 된 일본 여성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한·중·일 여성경제회의’에서 창립 선포식을 한다.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중국 여성 경제인들도 그에게 협회 설립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다.

신 전 회장이 일본과 교류에 앞장선 계기는 2004년 NHK 초청으로 일본을 찾으면서부터다. 대한민국 대외경제·통상대사 자격으로 방문한 당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되고 한류열풍이 불던 때였다. 그는 NHK 자회사인 마이코(MICO) 관계자로부터 ‘대장금’ 방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방송해야 시청자들의 이해가 쉽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겨울연가’가 네 차례나 NHK 전파를 타자 그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NHK에 감사패를 수여할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신 전 회장의 세심한 배려는 두 나라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데 유효한 역할을 했다.

나이를 잊고 사는 그는 지난해 7월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여성경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연설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역동적인 한국 여성 경제인의 힘을 외국에 알리는 데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세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지현기자